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된 무인점포

무인 인형뽑기방-빨래방-사진관 등 관리자 없어
출입명부-소독제 없는 곳도 상당수, 세부적 방역지침 필요
방역당국 “업종별 방역지침 세분화, 기준마련 논의할 것”

강교현 기자 kyohyun21@sjbnews.com

코로나19 무인점포가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입은 불특정 다수가 하는데 기본적인 소독제 비치는 물론, 방역명부 작성 등 도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2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무인빨래방. 매장 안에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출입 확인을 위한 명부와 기본 방역물품인 손소독제조차 찾아볼 수 없다.

빨래를 마친 윤모(27)씨는 “오늘은 평일이라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주말에는 빨래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빨래방에 출입명부도 없고 소독여부도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에 빨래만 넣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말했다. 방역 사각지대의 모습은 무인 빨래방

뿐만이 아니다. 오전 11시께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한 무인사진관. 입구에는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는 출입명부가 있었지만 손소독제는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출입명부의 마지막 기록은 2일전이었다.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 3명은 형형색색의 가발과 머리띠, 안경 등 장식품을 번갈아 가며 써보더니 곧이어 좁은 촬영공간으로 들어갔다. 무인 인형뽑기방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 인형뽑기방 출입문에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과 함께 ‘본 업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지만 매장 어느 곳에서도 출입명부와 소독제 등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날 기자가 찾은 대학교와 서부신사거리 등 전주시내 인형뽑기방과 빨래방, 사진관 등 무인점포 15곳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출입명부와 소독제 등 기본 방역물품을 비치한 곳은 두 곳밖에 없었다. 무인점포는 특성상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세부적 방역 수칙이 없다. 무인점포와 관련한 별도의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



27일 전주의 한 무인인형뽑기방 앞에 방역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하지만 실내에는 출입명부조차 비치되지 않았다.

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코인노래방 업주는 “코인 노래방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동일하데 요구하는 방역수칙은 다른 무인점포들과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업종별, 업태별 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방역수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기타업종으로 분류돼 업종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방역지침이 없다. 통상

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주요 시설에 대해 방역지침만 있을 뿐 모든 시설을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중앙에서 무인점포 관련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지침은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방역 지침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과정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무인점포 등 업종별로 세분화된 방역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음주운전 물의 송상준 전주시의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상준(덕진·박복·조춘·여의동·사진)전주시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형제 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오후 11시께 전주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계에 해당하는 0.064%였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형(약식기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 이후 피고인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송 의원은 최

후 진술을 통해 “어려서부터 행동으로 지인과 시민에게 실망,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전주시,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 부과 예정

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 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27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설한 전 목사를 상대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에서 ‘3.1절 국민대회 홍보를 위한 전국순회 기자회견’을 갖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 동안 연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주최 측은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며 방

역수칙 단속지도에 나선 전주시 공무원의 진입을 차단했다. 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전 목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다.

과태료는 28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10일간의 소명기간 뒤 부과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군산해경, 군산 앞바다 실뱀장어 조업 실태 점검

해경이 실뱀장어 조업이 급증하는 출어를 앞두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에 나섰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마다 2~5월 본격적인 실뱀장어 조업이 급증한다. 군산 지역 실뱀장어 조업은 동백대교에서 금강하구둑 방향으로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만 어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시기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 어구 설치와 무허가 어선들의 무부별한 조업에 의해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민들 간의 경장·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58건(22척, 24명)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에는 군산 해망동 일대에서 야간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어선 2척이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선박 통항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민 안전과 준법 조업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전북경찰, 김제 보궐선거 수사전담반 편성

전북경찰이 김제시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김제 나 선거구(옹지면·백구면·금구면·검산동) 보궐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간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김제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조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전담반은 설 명절 인사 등 명목으로 이뤄지는 금품제공과 호별방문을 집중단속하고, 온라인상 후보자 비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아울러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는 오는 3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련,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정당과 계층,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강교현 기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꼼작마

공익제보단 내달 1일 활동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활동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제보단은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북지역 제보단은 총 138명이다. 이는 사전신청을 통해 모집한 인원으로, 공단은 수시 모집을 통해 공익제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신성 본부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제보단 활동이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전주병원 이근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근수(사진) 기획조정이사 27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이사는 응급의료에 대한 업무 활성화와 체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응급실 격리실 구축, 중증응급환자 야간·휴일 수술지원사업 추진, 응급센터 365일 코로나검사 시스템 구축, 병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선진 방역시스템 도입 등 코로나 19와 맞물려 지역감염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수립했다.

이 이사는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을 대표해서 받게 된 표창인 만큼,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동혁 기자



친절한 부동산중개

광고문의 : 063)230-5700
010-3654-5030

공장·전문 하나로부동산

대표 박종택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공장 매매 및 임대
- 건물 : 2,684㎡ (용도 : 공장 / 창고사용가능)
- 토지 : 9,414㎡
※ 매매금액: 12억
※ 임대료 보증금 월세 1년분 월세 평당 1만원(약간조정가)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공장 임대
- 건물 : 150평(용도 : 공장 / 창고사용가능)
- 보증금 1500만, 월세 평당 만원 8월 입주가능

010-3651-6304

LBA 재테크 공인중개사

금암동 중앙하이츠A맞은편 버스정류장 옆(구.금암A)

매물접수

(전 북 지 역)

상가, 건물, 토지, 임야
원룸, 아파트, 주택 등

— 투 자 상 담 —

매수자
임차인] 대기중

063)232-7114 / 010-3652-7114

새전북신문
THE SAJEONBUK SHINNMN

도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
새전북신문입니다.

구독문의 063)230-5712